

#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미치노에키

오사카지사

## 증가일로에 있는 미치노에키

- 일본에는 '미치노에키(길의 역)'라는 도로변 휴게시설이 있다. 이곳은 단순한 주차나 휴게 기능 외에도 정보 발신 기능과 지역진흥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 1993년에 등장한 미치노에키는 당해 103개에서 24년이 지난 올해 1,145개로 집계됐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설치를 담당하지만 운영은 지자체, 민간기업, 협회·단체 등으로 다양한 곳에서 맡고 있다.
- 그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경쟁 과열로 운영이 어려운 곳도 늘어나면서 미치노에키는 해당 지역만의 특징점과 개성을 내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 일본 미치노에키의 3가지 기능

휴게 기능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화장실 등

정보 발신 기능

도로·지역의 관광정보와 긴급 의료정보 제공 및 발신

지역 연계 기능

문화교양·관광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지역진흥시설을 통한 지역 교류

카츠라기(みかつらぎ)의 휴게소



### 미치노에키 성공 사례 ①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이룬 '탄고왕국'

- 교토부 교탄고시의 미치노에키 '탄고왕국'은 고시엔 구장 약 8개의 넓이로, 서일본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곳은 연간 약 4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농산물 직매장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온천, 호텔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 이곳의 특징은 생산자가 시설 내 음식점까지 운영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는 생산자의 농축산물을 미치노에키 운영처가 상품화하여 판매하지만, 탄고왕국에서는 양돈농가가 바비큐 점포를, 목장 운영 대표가 스테이크 점포를 경영한다. 특히 목장은 스태프 9명을 고용해 스테이크 점포를 운영한 결과, 전체 매출이 130% 상승해 20마리의 소를 추가 사육하고, 사육사 2명을 추가 고용하는 성과를 올렸다.
- 미치노에키의 책임자이토 씨는 1차산업 부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는 고용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치노에키의 궁극적 목표라고 설명한다.

### 미치노에키 성공 사례 ②

#### 고령자 일자리를 창출해낸 '오바아짱이치·야마오카'

- 기후현 에나시 야마오카초에 위치한 미치노에키 '오바아짱이치·야마오카'는 연간 5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자랑한다. '오바아짱'은 할머니를 의미하는데, 말 그대로 이곳 레스토랑은 아

마오카초에 거주하는 70대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할머니들은 인근 지역에서 수확한 채소를 이용해 튀김, 절임, 조림 등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다.

- 또한, 지역의 고령자가 손수 만든 가공품도 인기가 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75세로, 자택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식품제조 면허를 취득해 60세가 넘어 창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60~70대 여성 3명은 쌀가루를 찐 후, 설탕·섞 등을 넣어 만든 전통과자를 생산·판매해 연간 약 7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수제떡을 만드는 70대 부부 역시 연간 약 1억1천5백만 원이라는 고수익을 내고 있다.



#### 지역색을 살린 제품과 마케팅의 필요성

- 일본의 미치노에키는 치열해진 시장 경쟁에서 차별화된 상품과 수익구조를 통해 1·2차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좋은 제품은 비싼 가격을 치르고서라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 한국의 로컬푸드 매장 역시 일본 미치노에키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고유의 특색을 살린다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일본 TV TOKYO 「日経スペシャル ガイアの夜明け」(2018. 7. 3.방영)  
일본 TV TOKYO 「日経スペシャル ガイアの夜明け」(2017. 5. 2.방영)  
일본 농림수산성 발간자료 「aff」, www.maff.go.jp (2017년 7월호)  
yamatoji.nara-kankou.or.jp